

1월 선교소식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 하시길 축복 합니다.

지구 한 편에서는 강추위로 다른 한 편에서는 무더위로 '아이고' 라는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라 생각 해 봅니다.

2017년 1월 선교소식을 나눕니다.

@ 탕가신학교 소식.

=> 신입생 소식.

신입생 26명이 입학했습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22명 중에서 5명이 마사이 부족 학생들이입니다. 탕가 신학교는 해 마다 탄자니아 전역에 많이 알려져 학생 모집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올 해로 신학교 시작 한지가 18년이 되어가고 올 해를 포함 앞으로 3년 후에는 만 20년이 되게 됩니다.

=> 전도폭팔 집중강의.

2월 9일 부터 14일 까지 미국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벨엘교회 전도폭팔 팀이 집중강의를 위해서 방문합니다. 이번 집중강의는 3번째이면서 탕가 신학교에서는 마지막 강의 이기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서 모든 staff들이 훈련에 동참하여 배우도록 했습니다.

=> 체육대회.

2월 24일은 탕가신학교의 체육대회 날 입니다.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신학교 모든 식구들의 교제에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친교 행사 입니다.

미니축구,줄다리기,족구,등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 2017년도 신입생 소식.

올해부터는 효과적인 교육향상 정책으로 학생 숫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50명의 모집에 약 300명이 응시를 했고 80여명이 합격을 했지만 그 중에서 41명만이 최종 등록을 하였습니다. 최종 등록 숫자가 적은 이유는 다른 학교를 선택 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개교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했다는 교사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 2016년 2학년 국가고시 결과.

총 56명중 50명이 1등급 6명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탄자니아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 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졸업한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결과는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 리빙 스톤 과학 고등학교 등록 진행 소식.

=> 등록에 관하여.

올 해 7월부터 고등학교가 시작 됩니다. 등록에 필요한 검사를 위해서 검사관들이 다녀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가 등록된 학교 이기때문에 별 문제없이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건축 소식.

고등학교 기숙사 3층 공사가 마무리 되고 지붕을 올리는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여 염려도 됩니다만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혹 비용 문제로 일이 다소 지연 된다해도 기존의 기숙사 1동이 남아 있기에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올해 고등학교 시작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 지역교회 헌당예배와 교회및 유치원 공사 계획.

=> 1월 27일 부터 30일까지 한국의 인천교회 선교팀이 방문을 합니다. 인천교회는 지금까지 탕가 지역에 9개의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 하였는데 이번에는 탕가 지역교회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헌당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 합니다.

=> 미소제 교회 유치원 건축 시작.

작년에 미소제(misozwe) 교회를 건축한 서울의 신성교회에서 미소제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경비를 보내왔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유치원 건축이 곧 시작 됩니다.

=> Komsala 지역교회 건축 계획.

Komsala 교회는 저희 사역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은 저희 사역지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에 있다보니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저희가 공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미소제 교회 유치원과 komsala 교회 건축에는 그동안 탕가신학교와 리빙스톤 학교 건축을 통하여 '노하우'를 얻은 저희 공사팀 일부가 파송되어 건축을 돕게 됩니다. 저의 육체는 피곤한 일 이지만

협력선교 차원에서 아주 귀한 사역이라 믿기에 돕기로 결정 했습니다.

@ 박선교사 부부 미국 방문 계획.

리빙스톤 학교건축과 필요한 물품들 구입을 위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느라 지난 3년동안 미국 선교회를 방문 하지 못했는데 올 해는 꼭 방문하여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한 교제를 나누려 합니다.

방문 날짜는 5월 23일 미국 도착 6월 9일 출국 입니다. 학교적으로도 잠시 시간이 나고 비행기표도 제일 저렴하다보니 선교회에 미리 의논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방문 기간으로 정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가능 하시다면 선교회 이사님들께서 의논 하시어 5월 27일(토) 또는 6월 3일(토) 선교대회 행사를 계획 하시면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 컨테이너 소식.

지난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준비한 20피트 컨테이너가 선적을 마치고 이제 곧 한국에서 출항을 시작 합니다. 이번에 주 된 물건은 최 신식 부엌 장비들, 3년 동안 학생들(중,고)에게 지급될 교복과 체육복, 고등학교를 위한 과학 물품들 입니다.

이번에 물건 구입과 해상 운송비 비용은 약 4만 5천불이 사용 되었으며 3분의 2는 한국의 선교회 그리고 3분위 1는 학교 제정에서 충당 하였습니다.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과학고등학교 등록과 그밖의 준비들을 위해서.

2. 컨테이너 안전 도착과 세금 면제를 위해서.
3. Misozwe교회 유치원, Komsala 지역교회 건축을 위해서.
4. 선교팀들의 안전한 여행과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5.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증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축복 합니다.

2017년 1월 27일

탄자니아에서 박윤석 선교사 가정 드림.